

LG하우시스, 울산 화재공정 신축

발포공정 노후화에 피해규모 커 ... 2013년 착공해 하반기 마무리

LG하우시스(대표 한명호) 울산공장이 11월16일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상한 발포공정을 모두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바닥재와 고기능 소재 등을 생산하는 LG하우시스 울산공장이 불이 난 발포공정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2월2일 발표했다.

LG하우시스는 발포공정 해체작업 후 2013년부터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들어가 하반기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발포공정이 노후화됐고 화재로 말미암은 피해가 커 공정을 새로 조립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판단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화재 당시 발포공정에 대해 2주일 동안의 공정중지 명령을 내렸다.

LG하우시스와 납품기업 등은 화재로 공정가동이 중단되면서 매출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LG하우시스 울산공장의 생산, 안전 실무부서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아직 화재원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화인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 관계자는 “발포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외부에서 발생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발포기) 자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2월 중순 전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11월16일 오전 12시58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망양리 소재 건축자재 생산기업인 LG하우시스 울산공장의 PVC(Polyvinyl Chloride) 바닥재 공장 발포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57)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김모(44)씨 등 근로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로 발포공정의 발포기 3대와 공장 내부 1500여㎡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03>